

복구, 올해 대외평가·공모서 우수성과

대외평가 41개 표창·37회 공모선정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1위 '함께 잘 사는 행복복구 실현 최선'

광주 복구가 올해 정부 부처 등의 주관으로 시행된 대외평가·공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 복구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대외평가·공모에서 78회 수상·선정되며 328억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값진 성과를 창출해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대외 평가 부문에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복지사업 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 1위를 기록했고,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지역 금융 협력 모델 발굴·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기초단체 중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중기부 주관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한국공공자연구원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12회 연속 최우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민원 서비스 종합평

가' 4년 연속 최우수,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전국 일자리 대상' 12년 연속 우수 등 구정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41개의 표창을 쓸어담았다.

공모사업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에 복구 첨단지구 선정돼 사업비 346억원을 확보하며, 복구가 민선 8기 역점정책으로 내세운 '기후 위기 대응 도심 수해 예방' 6개 사업비 1309억원 전액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억원,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e커머스 라이온 타운 조성사업' 12억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11억원 등 총

37회의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며 주요 현안 추진의 동력을 강화했다.

문인 복구청장은 "올해 평가·공모 성과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채워주며 재정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자책로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도 혁신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며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복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민선 7기부터 올해까지 각종 대외 평가·공모에서 총 675회 수상·선정돼 약 276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민 편의 사업에 투자해오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bo.com



풍암동·치평동 골목길 갤러리 조성 서구, 지역예술가 20명 작품 전시

광주 서구가 풍암동 모두모아길, 치평동 어깨동무길 골목 담장에 지역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골목길 갤러리를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예술가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풍암동 신암초-주은모아아파트 구간과 치평동 대주1차-중흥1단지 아파트 보행자도로 구간으로,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예술가 20명의 작품 2점씩 총 40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골목길 갤러리는 지난 9월 하정웅 미술관 잔디밭에서 가을힐링음악회와 함께 진행된 오픈 갤러리에 이은 두 번째 전시로, 지역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은 "골목길 갤러리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양림동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남구, 오랜 기념각·우일선 사택 등

광주 남구가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유지·보존을 위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에 나서고 있다.

광주 남구는 오는 27일 오후 한국선교 유적연구회와 공동 주최·주관한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의 보존 가치와 현황,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위한 학술적 연구 기반 및 등재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유적 소유자인 기독교간호대와 호남신학대, 수피아여중·고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남구와 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유산청 예산과 시비, 구비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결과 보고서에는 오웬기념각과 우일선 선교사 사택, 선교사 묘역, 수피아 홀과 커티스메모리얼 홀, 윈스보로우 홀, 수피아아이고 소강당까지 7곳의 자산별 현황조사 내용 및 건축적 가치가 담겼다.

또 유산별 보존 환경 및 보존을 위한 관리 계획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계획에 따른 종합 관리체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준 요건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보고서를 통해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는 서울과 청주, 광주, 전주 등 전국 8곳의 선교기지처럼 교육 선교와 복음 전도를 공통적으로 간직하면서, 의료 선교를 통한 결핵과 나병 환자 치료의 경우 양림동만 갖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결론지었다.

남구 관계자는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는 서양 문물 접촉을 통해 인간존중과 평등 세상을 열었던 중심지였고, 세계유산으로서도 역사적인 가치와 보존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우리 주민들께서도 최종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24일 천원한끼 4·5호점을 첨단2동(월계로150번길 9)과 하남동(마항6길 18)에 개소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추운 겨울 따뜻한 한 끼 드시고 가세요"

광주 광산구 첨단2동·하남동 천원한끼 4·5호점 문 열어

광주 광산구는 지난 24일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천원한끼 4·5호점을 첨단2동(월계로150번길 9)과 하남동(마항6길 18)에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천원한끼 식당은 고물가,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온기가득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난 5월 우산점을 시작으로 도산·월곡점에 개소했다.

이번 천원한끼 첨단점은 지방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식당 인근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양공원과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한 끼를 제공하는 천원한끼 취지에 적합한 점단에 열게 됐다.

첨단점 역시 65세 이상 노인인 4명, 40세 이상 복지 1인 가구는 10명, 그 외 주민은 3000원을 내면 된다.

식당 운영 및 음식 조리 등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담당한다.

주변 상가와와 상생을 위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판매수량도 하루 100그릇 한정한다.

더불어 광산구는 하남동(마항6길 18)에도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장인 '엄마사랑손맛' 식당을 활용해 5호점을 개소했다.

이곳은 식당을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동 어르신들을 위해 천원반찬으로 배달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천원한끼 식당 농촌점 개소로 연내 5호점까지 열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광산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초기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식당 운영 및 이용 환경도 꾸준히 개선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광산구, 광주 유일 국토부 뉴빌리지 선정

민선 8기 최대 국비 '98억원' 확보 교육청 협업·주민 소통 결실 우산동 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광주 광산구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서 '광산구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이 광주주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민선 8기 최대 규모인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래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우산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우산동 1025-1번지 일원)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총 196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산구는 국토부 사업 공모에 대비해 주민 설문조사를 비롯해 광산경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의 사전협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사전자문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오래전부터 주민, 학부모 등이 제기해 온 광산중학교, 송우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라는 숙원을 이 사업과 연계해 광

주시교육청, 각 학교와의 적극적인 논의로 통학로 부지를 확보했다.

공모 선정으로 광산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우산동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돌봄·실버어울림플랫폼 조성 △학교 담장 구간 개선을 통한 안전 통학로 확보 △어린이테마공원(무돌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노후주택·빈집 정비 등이 있다.

광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착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

